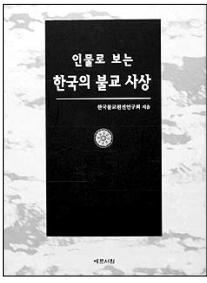


# 시대를 이끈 '큰 정신'이 있었네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대각국사 의천 스님, 나옹 혜근 스님, 청허 휴정 스님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 사상 한국불교원전연구회 예문서원 | 2만원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다. 불교사 역시 '사람'의 역사다. 우리는 삼국시대 불교사를 이야기하면 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되짚어 보게 되고,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되짚어 보게 되면 의천 스님과 지눌 스님을 만나게 된다. '불교사상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 인물의 사상에 따라 이미 분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사상>은 이처럼 한국불교사를 '인물'로 조명하는 책이다.

교수(장원전문대), 김미영 교수(서울시립대) 등 한국불교원전연구회(회장 은정회) 소속의 전문학자 15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사상사의 구성이 그 조각난 심층의 요소를 재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책은 한 인물의 궤적을 좇음으로써 미시적인 수행의 길을 성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책에서는 중국 남조에서 삼론(三論)을 변형시킨 승랑(僧朗)과 신라 왕손 출신의 원효 스님(613-696)을 통해 삼국시대 불교사상을 밝힌다. 또한 원효 스님과 동시대를 경험한 원효 스님(617-686), 원효 스님과 함께 분열과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의상 스님(625-702)을 통해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인 화쟁사상과 화엄학의 역사를 짚어 본다. 원효 스님이 사상사에서 갖는 무게감을 간파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 번뇌론 등을 통해 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천태 문헌을 가지고 중국에 가 중국 천태학을 중흥시킨 제관 스님, 북악의 화엄 원교의 법통을 이은 균여 스님(923-973), '보조선'을 정립한 지눌 스님(1185-1210)과 그 사상을 핵심 코드로 삼아 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지배이념으로 절대적 권위를 누리던 불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전

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허당 기화 스님(1376-1433)은 "마음의 때를 모두 제거한 후 확 트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유교와 불교의 공통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유불일치론'을 주장했고, 청허 휴정 스님(1520-1604)은 유불도 삼교(三教)에서 본래적 의미의 도(道)는 하나로 수렴된다는 '삼교회통사상'을 주장했다. 고구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당대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의 사상을 읽어가다 보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던 가르침이 '한국불교사'라는 하나의 큰 강물을 따라 흘러왔음을 느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두려움 없이 준비하는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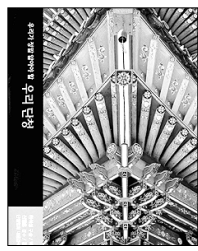
죽음도 엄연한 학문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려 하기보다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망학(thanatology)'은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학문분야지만 미국에서는 60년대 이후부터 대학에서 사망학, 사망교육이란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사망학은 단순히 사망이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의 삶에서 보다 진정한 행복과 정신적 가치를 찾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망학>을 지은 법성 스님(법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이끌고, 죽음을 두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사망학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스님은 사망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식과 범위, 생명의 원리, 동서양의 생사관 등을 짚어보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살피고 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인종을 맞게 되고, 그 책임은 바로 인생을 살아온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은이는 책에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무소유의 자유자재한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 뿐이다"고 강조한다.



사망학 법성 스님 지음 운주사 | 1만2천원

## 한국 단청의 산 역사 한석성의 삶과 작품

고즈넉한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건물의 벽면이나 천장을 타고 흐르는 곱고 화려한 빛깔의 단청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은 '한국 근현대 단청의 산 역사'로 불리는 한석성 장인의 단청세계를 조명한 책이다. 한석성 장인은 조선말기 단청으로 일가를 이룬 한용식의 아들로, 15살 때부터 단청의 밑그림이 되는 단청초본을 배우기 시작했다. 60여년의 세월을 단청 맥을 잇는데 바친 장인은 그동안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 경주 불국사 대웅전, 강진 무위사 극락전, 서울 송례문 등 국내 유수의 사찰과 궁궐의 단청 작품을 남겼다. 특히 보탑사 삼층석탑은 기존의 단청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옛것과 창자를 조화시킨 '한석성 단청의 완성작'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단청 한석성 구술 박해진 정리 현암사 | 2만원

뛰어나도 일에 빈틈이 없었다"며 "아버지와 함께 단청으로 일가(一家)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2부 '한석성의 단청'에는 사진작가 김대백 씨가 촬영한 한 장인의 단청 작품을 화보로 구성하고 그 작품의 밑그림인 초본을 실었다. 한 장인의 정교하고 섬세한 필력과 색채를 사진으로 느낄 수 있다. 3부 '한국의 색, 단청이야기'에서는 2천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단청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단청의 역사, 종류, 빛, 무늬, 시공(施工)을 사진자료로 엮어 쉽게 풀어 썼다. 한국 고대단청의 면모를 보여주는 고구려 고분벽화, 위는 푸르게 아래는 붉게 칠해 조화를 이루는 상록하단(上綠下丹)의 원칙, 임진왜란을 전후로 크게 바뀐 조선시대의 단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 장인이 직접 모사한 수묵사 대웅전의 단청이나 문화재, 흥화문, 명전 전 단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단청에서 귀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박준주 단청협회 고문은 머리말에서 "한 장인의 흔적과 자취 그리고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이 책은 단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 깊어가는 가을 큰스님과 함께

성철·청하 스님 열반일 맞아 범문집 나와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지음 정경각 | 8천5백원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하스님문도회 엮음 이튼아침 | 1만2천원

정중한 가을바람 같은 큰스님의 가르침이 두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성철 스님의 열반 11주기(11월 4일)와 청하 스님의 1주기(11월 12일)에 맞춰 나온 <해탈의 길>,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이 그것이다. 책에는 현대인들에게 내리는 감로수 같은 스님의 법문이 가득 담겨 있다. '수도자에게 주는 글'이란 부제의 성철 스님의 <해탈의 길>은 기존의 성철 스님 법어집 <자기를 바로봅시다>에 실렸던 '수도자에게 주는 글'과 <영원한 자유>의 '영원한 자유인' 그리고 스님의 발원문을 모은 책이다. 2장 '수도자의 다짐'에는 성철 스님이 스스로에게 수행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졌던 내용을 담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 결사 당시 작성한 '함께 살기 위한 약속', 64년 청담 스님과 함께 작성한 '서원문', '열두 가지 다짐' 등이 담겨 있다.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은 40여년 간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으로 유명한 청하 스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수행이 바로 열반'이라는 스님의 말씀과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 수 있다.

###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야원
2	길을 찾아라	대법 스님	운주사
3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4	오래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5	생활 속의 관음경	우룡 스님	효림
6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7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하 스님	이튼아침
8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9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정경각
10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 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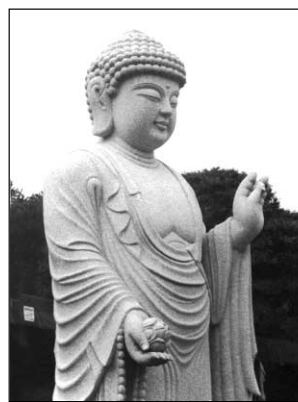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공인선 전문염생! 전각 대산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님이 역저한 <마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책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인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2005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야간) 신입생모집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 모집학과
  - 가.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위기관리, 행정법무, 소방행정전공
  - 나.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신설), 사회복지상담전공(신설)
  - 다. 지방정부경영학과 : 지방경영,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정치정보전공
  - 라.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전공
  - ※ 소방행정 전공은 전강좌를 On-line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함
- 모집인원 : 각 학과 ○○명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2004. 11. 22(월) ~ 12. 2(금) 09:00 ~ 21:00 (토, 일요일은 제외)
  - 나. 장소 : 행정대학원 사무실(본교 탐구관 505호)
- 전형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04. 12. 4(토) 10:00~
  - 나. 장소 : 고시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 합격자 발표
  - 2004. 12. 10(금) 14:00 이후
  -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 제출 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탈도 상반신 사진(3×4cm) 3매 부착) .....1통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 다. 대학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기재) .....1통
  - 라. 주민등록등본 .....1통
  -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전 영 료 : 50,000원
- 기 타
  - 가. 본 대학원은 4학기 과정임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으로 문의바람
  - 전화 : 02)760-4071, 5845 / FAX : 02)760-584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sung.ac.kr
- 특 전
  - 가. 학위과정 신입생 전원에게 두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 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매협력기관재직자에게 수업료의 50%를 감면함.
  - 다. 공무원, 각급학교 이상의 정규교직원 및 전공관련 기관 재직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중인 자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함
  - 라.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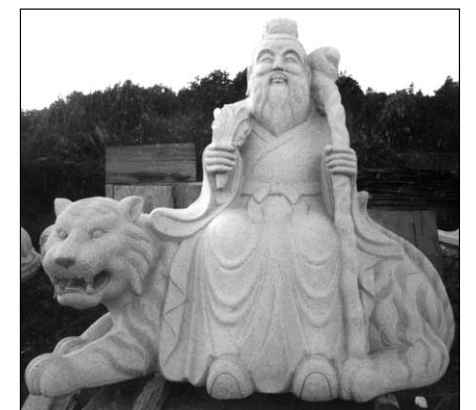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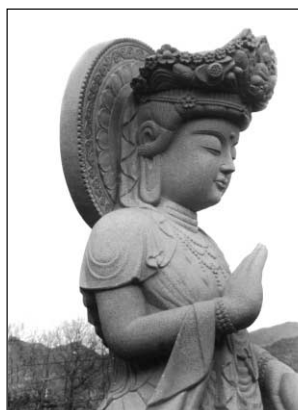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